

이덕일의 '역사의 창'



재상의 무게

서인들이 광해군을 내쫓은 이른바 인조반정 당시 이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다. 인목대비 폐위 등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대소 백성들에게 인조반정은 국가 재건에 힘쓸 시기에 발생한 불필요한 정치적 소요에 불과했다. 반정 일등공신인 이서(李瑞)는 반정 직후의 상황에 대해, "갑자기 광해군을 폐출하고 새 임금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나라 사람들은 새 임금이 성덕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다"고 상하가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성패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터에 위세로써 진압할 수도 없어서 말하기 지극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인조반정에 대한 반발이 컸지만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힘들었다는 이야기다.

것이 그 당시 민심이었다. 이월익이 이때 영의정을 수락한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는 의문이지만 그가 반정을 용인하지 않자 대소 백성들에게 인조반정은 국가 재건에 힘쓸 시기에 발생한 불필요한 정치적 소요에 불과했다.

이서는 "오리 이월익이 전 왕조 때의 원로로서 영상에 제수되어 여주로부터 입조(入朝)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안정되었다"라고 말했다. 선조와 광해군 때 영의정을 역임한 남인 이월익(李元翼:1547~1634)을 영의정으로 영입하자 대소 백성들이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만 일흔일곱의 원로였던 오리 이월익이 영의정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간 전염병과 가족 전염병이 더해져 팔재(八災)가 덮쳤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했지만 상하가 합심해 끝내 극복했는데 그 핵심에 대동법이 있었다.

현종 14년(1673) 11월 전 사간(司諫) 이무가 현종에게, "대소 사민(士民)이 서로 '우리가 비록 신해년(현종 12년)의 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동법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대동법에 정치 인생을 건 재상 김육의 경륜 덕에 경신 대거군이 극복된 것이다. 나라의 원로 대정을 받는 재상 한 명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 역할을 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현정권에 이월익·김육처럼 무게 있는 재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무게 있는 재상은 문제의 큰 틀을 보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런 재상이 없으니 겉거지만 무성하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불행한 현재의 교육 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편은커녕 대입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교육 문제의 전부인 양 소리만 요란했던

교육부 수장의 행태도 이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 논란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 상당수도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제적 약자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다. 광복 이후 계속된 친일 지배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촛불 정신이건만 새 정권 들어 식민(植刀)은 칼끝도 보이지 않는다. 추운 겨울 우리 사회의 그릇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해 가고 있다.

〈한기람역사문화연구소장〉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이두영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과장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 대상 포진

이 낮으나 발진 발생 시작 후 7일까지 피부 병변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분리될 수 있으므로 대상 포진 환자와의 직접 접촉 하면 수두의 발생이 가능하며, 전신으로 물집이 퍼지게 되는 파종 대상 포진의 경우 비말 파제 전파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아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대상 포진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발진 발생 시작 평균 4~5일 전부터 피부절 수두-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일생 동안 잠복해 인체에 존재하게 된다. 이후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세포 면역 체계의 변화로 인해 재활성화돼 신경괴사와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을 따라 내려가 피부에 특징적인 군집성 물집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대상 포진이라 한다.

발병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면역 저하, 스트레스, 방사선 조사, 종양 등과 연관돼 발생할 수 있다. 가장 강한 위험 인자는 고령으로 인한 수두-대상 포진 바이러스, 특히 세포 면역의 감소로 추측된다. 대상 포진이 가장 잘 발생하는 피부 부위는 몸통이며 두 번째가 안면부, 세 번째 다리 등의 순이지만 전신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다. 수두보다 전염력

고령의 환자가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발진 소실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드물게 감염이 운동 신경 세포까지 파급된 경우 소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안면 신경을 침범해 발생하는 안면 마비이다. 이 경우 신경과 전문 의와의 협진 체계가 필요하며,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피부 병변이 호전된 후 혹은 병변이 발생한 지 1~3개월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파종 대상 포진(postherpetic neuralgia)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상 포진 후 발생하는 합병증 중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이다. 50세 이하에게는 비교적 발생이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약 50%에서 발생할 정도다.

고령 이외의 위험 인자로는 피부 병변이 발생하기 전부터 통증이 있었던 경우, 심한 발진과 이에 수반하는 급성 통증이 심했던 경우, 안구 주변에 대상 포진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대상 포진의 치료와 예방 피부 발진 시작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효과가 빠르다.

대상 포진의 치료 목표는 통증의 억제,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차 세균 감염

억제, 포진 후 통증 등의 합병증 예방 및 최소화로 요약할 수 있다. 충분한 양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혈액 검사 후 처방받아 7일간 복용하거나 중증의 경우 입원해 주사용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게 된다. 초기 물집 형성 시기에 간혹 시중에 판매하는 항바이러스제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효과가 없다. 통증이 심한 경우 수면 장애, 피로,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통증 치료가 필요하며 때때로 마약성 진통제까지 필요할 수 있다.

예방 주사로는 2006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상 포진 백신이 처음으로 승인됐고, 그 당시 연구 결과 약독화 생백신인 이 주사가 고령 환자의 대상 포진과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증명됐다. 이후 2017년 두 번째 백신이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이전의 약독화 생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지만 1~2년 이내에 국내에서도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대상 포진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환자들은 반드시 대상 포진 예방 접종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하길 바란다.

기고



황옥주 광주수필문학회 회장

다시 생각하는 사람 '인' (人)의 의미

문에 '人' 자가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풀이가 허허롭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人' 자를 상형이 아닌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人' 자를 두 성의 합일(合一)에 의해 탄생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이성 간 믿음과 사랑의 바탕 위에 어떤 희망을 전제로 탄생한 생명체의 상징이바로 '人'이다. 두 획 사이엔 애초에 주종이 없다. '人' 자를 사회적 글자로 보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최성현 수필가의 '시코쿠를 걷다'를 다시 읽으며 새삼스럽게 '人' 자의 다른 풀이에서 흥미를 느꼈다. 처음 읽을 때 그냥 지나쳤던 얘기다. 나이 들면 그만큼 성장과 사유도 여유를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하지는 모르겠다.

일본 시코쿠에는 '88개 영장(靈場)'이라는 88개의 사찰이 있다. 모두 쿠카이(空海·홍법대사)가 연 산문이다. 그 본산은 와카야마(和歌山) 고야산(高野山)에 있으며 일본 진언종의 성지다. 시코쿠의 88영장은 순례자들을 위해 일련 번호를 붙여 놓았다. 그 연장 거리가 최성현의 수필집에는 1200km, 고바야시 시게루(小林 茂)의 '四國 88カ所'라는 책에는 1440km로 기록되어 있다.

놀랍게도, 이 사찰들을 순례하기 위해

일본 전역은 물론 세계 불자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 다는 아니더라도 내세의 극락정도에 들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전용 순례 버스, 자가용 차로, 자전거로, 순례 방법도 다양하다. 순례는 원래 걸어서 하는 것이 원칙,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꽤 있다. 힘든 길에 노인들이 많은 탓이다. 죽어도 흥법대사의 인도라 믿어 내세가 가까워졌다느니 사람일수록 더 열성적이며, 죽는다는 사실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다카마쓰한국교육원에 근무할 때, 아내와 관광 겸 호기심으로 순번 무시하고 단 한차례 들었을 뿐인데 5년이 나 걸렸다. 50회도 넘는 순례자를 만날 때가 있어 그저 놀랄 뿐이다. 최성현 수필가가 이 영장들을 순례하며 기록한 수필집이 '시코쿠를 걷다'이다.

작가는 어느 젠콘야도(善根庵·순례객들을 위한 무료 숙소나 산 가격의 숙소)에서 다카나 요코라는 중년의 순례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요코는 '人'의 두 획을 부부의 상징으로 본다. 위의 긴 획은 남자, 아래에 바치고 있는 짧은 획은 여자라는 것이다. 아래 획을 없애면 윗획은 저절로 무너져 남자는 여자 없이는 오래 살지 못하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여명(餘命)은 2년이라고 했다. 반대로 남자가 먼저 죽었을 때의 여자는 평균 17년이나 더 산다. 검증은 거친 바 없는 나름대로의 심리학 치료, 자전거로, 순례 방법도 다양하다.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요즈음의 세태와 '人' 자를 포개 보고 씩씩히 웃었다. 그 '황혼 이혼'이란 슬픈 풍조 때문이다. 황혼 이혼은 대부분 여자 쪽에서 바라고 요구한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지만 얼마 남지 않은 여성, 홀로 걷는 황혼 길의 외로움, 서산일락 앞에서 이혼이라니...

좋은 인연이었다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빌어도 '어디서 무엇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다음 세상, 주종 없이 살았던 세월을 약 삼아 조금만 더 참아볼 일이다. 피아 식었음지라도 앞서 갈 이를 위해 눈물 한 방울쯤은 남겨두어야 그간의 정이요, 의리일 터다.

사랑의 시효는 3년을 넘지 못한다 한다. 동행 50~60년이면 달궈졌다 식어버리기 20번도 더했을 세월이다. 17년의 매력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흔들릴까 은근히 겁이 난다.

社說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 철저히 검증해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그제 공포됐지만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내일부터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돼야 하지만 여야 주요 정당에 추천이 지연돼 위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요 직책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자리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4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가운데 3명의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 이들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장·차관급인 상임위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추천 몫인 상임위원과 조사위원 자리를 놓고는 과거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인

사 등이 당내 인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해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산 한국당이 이번에는 어떤 인사를 내세울 것인지도 관심사다.

조사위는 그동안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을 통한 수차례 조사에도 밝혀내지 못한 계엄군의 발포 경위와 행방불명자, 압매장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점을 때문에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이 5·18 진상 규명에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의 임명 전에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이후 38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지닌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진실 규명 성패의 관건이다. 검증 과정에서 '광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KTX 투자 지구 통과 송정역 개발 기대된다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송정역 일대 지역경제 거점형 KTX 투자 선도시구 개발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고속철도 역사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송정역이 처음으로 광주·전남의 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투자선도시구사업은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전략 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시구사업이 실현되면 송정역을 중심으로 상업 지구와 융복합(산업+업무+주거+상업) 지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뿐만 아니라 빛그린산단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 사실 그동안 송정역은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옛 유흥 구역이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난개발이 확산되면서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복합환승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 등 타 지역과 달리 송정역에는 현재 주차 타워만 건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KTX투자지구사업은 송정역 개발이 자칫 옹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가문의 단비'와도 같다 하겠다. 중앙 부처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X투자선도시구사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호남의 관문인 송정역이 고유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주차 건물, 환승 통로, 택시 대기 공간 등 편의 시설 구축에 서부터 여향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조형미를 더한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세부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적폐와 혁신에 대해 요즘처럼 자주 이야기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지금의 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혁신의 대상은 바로 과거부터 쌓여 온 폐단, 즉 적폐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단짝처럼 붙어 다닌다. 적폐의 청산이 혁신이라는 의미다. 조직·단체·기관은 물론 지역이나 국가에서의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자리를 굳건히 하며 이미 뿌리를 내렸고, 구성원 대다수가 이를 받아들이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폐와 혁신

성공 가능성은 낮다. 기득권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는 피로감이 뒤섞여 적절히 타협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기관장 인선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업과 맞서 부국강병을 위해 법을 바꾸고, 실력과 실적에 의해 벼슬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에 나섰다. 연좌제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이로 인해 국가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혁신을 주도한 상징과 오기 등의 말로는 비참했다. 혁신을 바랐던 군주

가 마음을 바꾸거나 먼저 사망하면서 동력이 사라지고, 숨죽였던 기득권 세력은 다시 과거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여론전을 펴면서 혁신에 피로감을 느낀 구성원들을 자극, 혁신 세력을 몰아내거나 몰살시켰다. 조선 시대 태조의 정도전, 중종의 조공조도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혁신은 그 내부에서 동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혁신을 바라는 리더는 외부에서 인재를 찾아 조직·단체·기관 등에 강제로 '접합'하는 방법을 쓰지만, 이 또한 이것이 오랜 기간 지속

성공 가능성은 낮다. 기득권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는 피로감이 뒤섞여 적절히 타협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기관장 인선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업과 맞서 부국강병을 위해 법을 바꾸고, 실력과 실적에 의해 벼슬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에 나섰다. 연좌제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이로 인해 국가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혁신을 주도한 상징과 오기 등의 말로는 비참했다. 혁신을 바랐던 군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대체부 220-0652	기획관 리 국 227-9600	업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